

사회

떨정한 집기 버리고 태극기는 쓰레기통에

서구청 새청사 이사 '쯧쯧'

의사록 담긴 디스켓도 무더기 폐기

“서민들은 하루 하루 보내기가 빠듯한데 공무원들이 아직 쓸만한 집기를 아무렇게도 버리다니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산 물건도 이렇게 버릴지 의문입니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떨정한 사무실 집기를 버리거나 쓰레기와 함께 방치해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까지 구(舊)청사에서 신(新)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한 뒤 이날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구는 청사를 옮기면서 아직 쓸만한 의자나 책상 등 철재로 마련된 집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구청 직원들이 모두 떠난 서구 구청사 앞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의자들이 각종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 또 간단한 수리만 하면 얼마든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용 책상 5~6개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새 태극기 10여장도 서류 봉투에 고스란히 담긴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의회 사무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로피 디스켓도 수십 장 발견돼 각종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

더욱이 서구는 신청서에 임주하면서 서약 원을 들여 추가로 의자와 책상 등 새 사무용품은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주민 김모(50·광주시 서구)씨는 “수시로 ‘재정난 타령’을 하는 구청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물품을 마

구잡이로 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새로 구매한 물품들은 구청사에는 없었으나 신청서에 마련된 공간을 위한 것”이라며 “버려진 의자 등 사무용품은 사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디스켓에는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될만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구는 올 초 수백 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각종 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밝히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구 보건소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 서구가 청사 이전을 마무리한 14일 구(舊)청사 민원실 앞 쓰레기 더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태극기 10여장과 사용이 가능한 의자 등 사무용품이 버려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괴청년 협박' 파문

대낮 총장선거 핵심인사·단과대 학장 찾아가 위협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가 역대 최대 후보(8명) 출마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괴청년들이 대학 선거 핵심 인사와 단과대 학장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조선대와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대학 이사이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A씨가 운영하는 광주 모 병원에 30대 후반의 괴청년 2명이 들어와 협박을 했다.

이들은 이 병원에 들이닥쳐 진료중인 A씨에게 “내가 x x x 맞냐. 짝바로 해, 좋지 않아” 등의 폭언을 한 후 나갔다.

이들은 이에 앞서 단과대 학장인 B

교수 연구실에도 들러 교수 이름을 확인하는 등 위협을 행사했으나 B교수의 동료가 함께 있었던 탓인지 곧바로 연구실에서 나갔다.

B교수는 즉시 관할 광주 동부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B교수는 “동료 교수가 함께 없었던 큰 낭패를 봤을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에서건 대낮에 위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위원장은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선거 기간에 벌어지면 서 대학 내에서는 각종 억측과 소문

이 난무하고 있다.

피해자들 직책의 중요도를 감안해 총장 선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 하면, 대학 이사와 단과대 학장 신분인 만큼 대학 행정·경영상 대립 관계에 있던 단체나 특정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전직 총장들이 특정후보를 겨냥한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거나 하면 한 후보의 선거 참모 이메일이 해킹 당하는 등 조선대 총장 선거가 과열을 넘어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자

부당이득 환수 추진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제작·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작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불법 게임기 ‘체리 마스터’를 제조해 광주와 전남·북, 경남지역 당구장 등 100곳에 판매 또는 임대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43)씨 등 업자 3명의 부당이득금 6억원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643건(1532명 입건), 올해 1613건(2159명 입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추석 연휴 빈집털이 극성

남구 등 고급 아파트만 골라 동일범 소행 절도 7건 발생

추석 연휴에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광주시 남구 A아파트와 B아파트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2건씩 모두 4건이 발생했다.

앞서 연휴가 시작된 지난 10일에도 동구 C아파트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3건의 빈집털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추석연휴를 전후해 광주에서 총 7건 이상의 아파트 절도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A아파트 등은 광주지역에서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로 소득 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거주 중이다. 범인은 아파트 3층 이하 저층 가운데 배란다 창문이 열린 세대만 노

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에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빈집털이 7건의 피해액은 현금과 명품 시계, 귀금속 등을 모두 합쳐 최소 수천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와 배란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자료를 토대로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남구 일대 아파트 2곳에서 총 7건의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부터 남구지역 아파트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395) 김종두



정신질환 입원 환자

병원 옥상서 추락사

14일 오전 11시경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모 병원 주차장에서 환자 임모(55)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겨있는 것을 병원 관계자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아 5개월 전 입원한 임씨는 이날 5층 옥상에서 병원 측이 실시한 레크리에이션에 다른 환자와 함께 참여하던 중 사라졌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옥상에는 3명 가량의 병원 관계자도 있었으나 미처 임씨를 살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씨가 자신의 신병을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 관리 소홀 등 병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학생 가장 날씬하다

전남도 전국 평균보다 낮아

초중고 비만도 조사

광주지역 초·중·고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도비만 이상인 초·중·고생의 비율은 2008년 11.2%, 2009년 13.2%, 2010년 14.3%로 3년째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비만율이 2010년 기준 16.0%로 여학생(12.3%)보다 높았고, 각급별 비만율은 초등생 14.0%, 중학생 13.7% 고교생 15.3% 등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는 강원도 학생의 비만율이 1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15.9%), 충남(15.5%), 울산·인천(15.4%), 대구(15.3%) 등 순이었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2.2%)였다. 전남도 전국 평균(14.3%) 보다 낮은 13.4%였다.

광주 남학생의 비만율은 13.2%로 여학생(11.1%) 보다 높았고, 전남도 남학생 비율(14.7%)이 여학생(11.9%)을 웃돌았다. /윤영기자 penfoot@

학교주변·주택가 PC방 음란물 버젓이

북부경찰, 업주 등 3명 검거

도시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청은 14일 불법 성인 PC방을 운영한 이모(47)씨와 김모(39)씨 등 업주 2명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건물에 성인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000원, 10분 초과 시마다 2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음란물을 상영해 하루 평균 25

만원 정도의 이익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음란물 수백 편이 저장된 PC를 3.3㎡ 규모의 독립방 15개에 각각 설치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북구 신안동의 또 다른 성인PC방 주인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반칙영업을 하는 성인PC방이 자영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주택가, 학교 인근에까지 퍼져 있는 성인PC방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초등학교서 동전 3850원 훔친 30대 딸

상남팔 ○동네 초등학교에 블래 침입해 동전을 훔치던 30대

대가 범행 현장에서 사설 방범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14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배회사 직원 고모(34)씨는 지난 13일 밤 10시15분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모 초등학교 1층 교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교사 박모(여·31)씨의 동전통에 현 동금 3850원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날 학교 운동장에 산책을 나온 박씨는 열려진 학교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실에 침입했다가 방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방범업체 직원에 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10월 4일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